

2011 문화계 결산

④ 문화행정



올해 출범한 광주문화재단은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하며 지역문화계 발전에 기여했으나 지나치게 방만한 운영은 시정되어야 할 점으로 지적됐다. 사진은 재단이 개최한 광주아트페어 모습.

<광주일보 자료 사진>

기대 커던 문화재단 '절반의 성공'

올해 지역 문화계의 가장 큰 화제는 광주문화재단(이사장 노성대)의 출범이었다. 광주문화재단은 기존의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와 광주공연예술재단을 통합한 거대 조직의 탄생이라는 점에서 지역 문화계의 관심이 쏠렸었다.

무엇보다 기존 문진위가 단순히 기금 분배 사업에 치중했던 데 비해 재단은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큰 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절반의 성공'에 머물렀다는 평가다.

올초 25명의 직원으로 출범한 문화재단은 12월 현재 50명으로 인원이 늘어났다.

타이틀로 둑어 진행했으며 '자스민 광주'를 제작, 에디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공연했다. 또 시민참여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문화농부' 1만명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며 문화예술진흥원이 공모했던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에도 선정돼 소외계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음악교육을 시키는 성과도 얻었다.

또 아트페어 등 굵직한 행사를 진행했으며 각종 기금 사업의 심사위원을 전국 단위로 확대한 점은 의미있는 시도였다.

기대가 많았던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재단의 사업

의견을 반영하지 않다 보니 문화예술지원팀의 경우 소속이 자주 바뀌는 등 혼란을 줬다. 여기에 광주시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입장에서 시 문화정책실 등과 정책 공조를 하는 것은 맞지만 지나치게 시의 사업들을 떠안거나 시의 정책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문제였다. 광주시립예술단의 법인화를 둘러싼 성급한 논의들이 이에 해당된다.

기금 확충도 풀어야 할 숙제다. 12월 현재 재단 기금은 85억원으로 출범 초보다 5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중 5억원은 기업들의 기부였으며 광주시 출연금의 경우 내년 예산에서 10억원을 책정했으나 의회에서 예산이 모두 깎여 대책 마련을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광주문화예술회관이 개관 20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이기도 했다. 문예회관은 무용단과 소년소녀합창단 등이 '알을 품은 도시'와 '성공 이순신' 등 기념공연을 무대에 올리고 기획공연을 진행하는 등 1년 동안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또 활용 방안을 놓고 오랫동안 논란이 됐던 옛 시립미술관 자리를 가변형 극장으로 변화시키로 한 점도 의미있는 행보였다.

하지만 시립예술단 운영에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광주시립합창단 신임 지휘자 선임과 관련, 내정자가 자진 사퇴하는 등 매끄럽지 못했으며 예술단체들의 작품활동에 지나치게 개입하면서 자율성을 훼손하는 사례도 많았다.

무엇보다 지역 문화계 발전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 가장 필요한 문화예술 기초 현황 조사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으며 무엇보다 장기적인 정책 개발 등도 미진한 상태다.

출범 이후 두번이나 조직을 바꾸는 등 잦은 조직개편도 일의 효율성을 떨어트렸다. 현장에서 직접 뛰는 실무진들의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지역문화 견인... 방만운영·정책개발 미흡

개관 20년 문예회관 예술단 운영 아쉬움

다. 내년부터는 광주시 동구 운집동에 들어서는 전통문화관도 운영하도록 돼 있어 8명을 추가 선발, 직원은 58명으로 늘어난다. 올해 전체 예산은 229억원이었으며 인건비와 적립금 80억원 등을 제외한 사업비는 121억원이었다. 이중 위탁사업 예산은 111억3000만원으로 93%를 차지한다.

재단은 ▲문화예술진흥 지원을 통한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아시아문화 중심 도시 기반강화 ▲축제의 전국화·세계화를 통한 도시 브랜드 강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문화복지 서비스 확대 등 7 가지 추진 전략을 놓고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했다.

광주국제공연예술제 등 기존의 각종 문화 행사를 '페스티벌-오 광주'라는

이 너무 방만하다는 점이다. 이는 광주시의회 행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문제다.

재단 자체 사업으로 행사들 기획하는 것은 좋으나 단일 콘서트 등 민간 영역으로 남겨두고 세단족에서 나서지 않아도 될 행사까지 중구난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다 보니 전문문화 인력들이 일에 허덕이는 등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역 문화계 발전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 가장 필요한 문화예술 기초 현황 조사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으며 무엇보다 장기적인 정책 개발 등도 미진한 상태다.

출범 이후 두번이나 조직을 바꾸는 등 잦은 조직개편도 일의 효율성을 떨어트렸다. 현장에서 직접 뛰는 실무진들의

특히 내년에 신설되는 광주시립극단 역시 광주문화예술회관이 관리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예술단체 운영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삼혜원으로 '찾아가는 미술관' 전

여수미술협회, 66명 참여 작품 선사

여수미술협회(회장 양해웅)는 내년 1월 31일까지 협회 작가들의 작품을 모아 여수시 연등동의 아동복지시설인 삼혜원에서 전시하는 '찾아가는 미술관' 전을 연다.

GS칼텍스의 후원으로 열린 이번 전시에는 양해웅·김정숙·김연·변정옥·송완준·강종래·김상선·박난희·김창섭·곽금원·이정철씨 등 협회 회원 66명이 참여해 아름다운 작품을 선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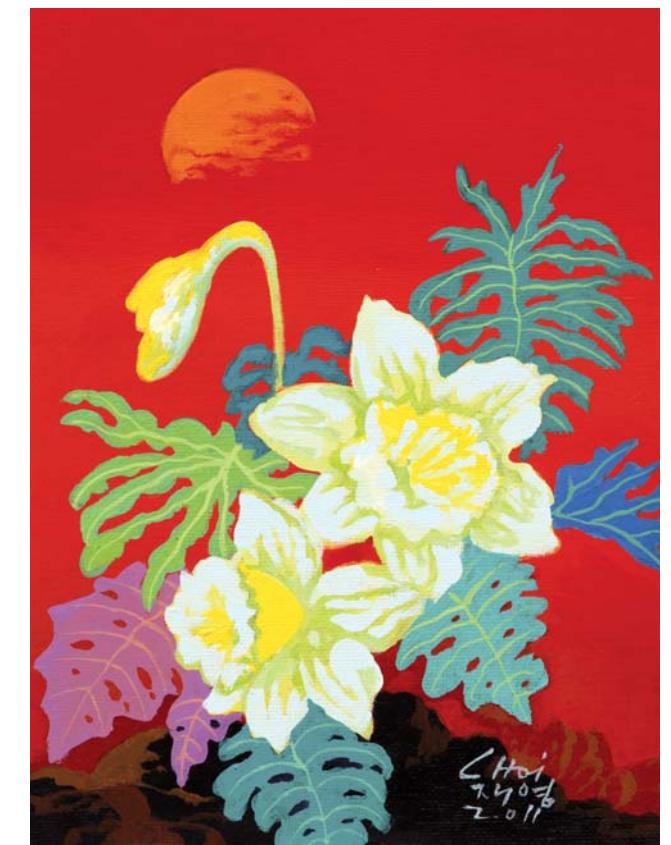
지난 1963년 문을 연 삼혜원에는 73명의 어린이들이 머무르고 있는 곳이며, 이들 아이들이 생활 공간에서 자유롭게 출품작을 감상 할 수 있게 한 점이 이번 전시의 특징이다.

양해웅 회장은 "작품에서 전해오는 감동을 통해 이곳 아이들이 희망을 꿈꾸며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061-663-3937.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여수 삼혜원에서 열린 여수미술협회의 '찾아가는 미술관' 전을 관람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



최재영 작 'Nature-c'

“보너스로 그림 한 점 사세요”

광주시안갤러리 지역 유명작가들 소품전

“연말 보너스로 그림 한 점 사서 집안에 걸어놓으세요”

광주시안갤러리는 내년 1월 12일까지 지역 유명작가들의 소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제4회 시안갤러리 작은 그림, 큰 기쁨' 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강동권·강운·고근호·김영태·김해성·류재웅·박구환·박태후·서기문·설박·송필용·신양호·이조희·정광희·정윤화·주라영·주대희·진원장·최미연·최재영·한부철·한희원·홍원철씨 등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견·청년작가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회화, 사진, 조각, 판화 등의 다양한 장르와 표현기법으로 완성한 소품들을 전시한다.

고근호씨는 알루미늄 판재를 재단하고 채색한 후, 볼트와 너트로 조립한 아기자기한 조각품을 출품했고 설박씨는 먹을 물들인 화선지를 잘게 끊어 이어붙이는 방법으로 독특한 산수화를 표현한 작품을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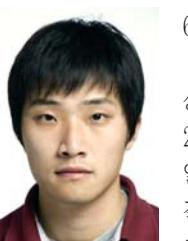
또 최재영씨는 자연의 소중함을 밝은 색채로 표현한 작품을 내놨고, 한희원씨는 강렬한 청색과 흰색을 대비시켜 언덕을 형상화한 작품을 전시한다. 문의 062-570-2334.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대 출신 김정희·신희수씨 사진비평상 공모전 수상



광주대 출신 사진작가
김정희·신희수씨



신희수씨

68명의 작가가 응모했다.
제13회 사진비평상 시상식 및 수상작품 전시는 2012년 1월 18일부터 25일까지 서울 동숭동 이양 갤러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김정희씨는 '전송오류, Light In The Night'라는 작품을, 신희수씨는 '노란색 스타킹 혹은 검은색 뺨스'라는 작품을 각각 출품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 1999년에 제정된 사진비평상은 국내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데, 이번 공모전에는 국내·외에서 활동 중인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미디어 아티스트 백남준

한국 현대미술 최고 작가

미디어 아티스트 고 백남준이 한국 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최고 작가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김달진미술연구소는 개소 10주년을 맞아 한국미술의 흐름과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미술평론가, 큐레이터 등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런 응답을 얻었다고 26일 말했다.

2위는 신안 출신 서양화가 김환기(22표), 3위는 이우환(21명), 4위는 박수근(17명), 5위는 이중섭·권진규·박생광·오윤·김수자·박이소·서도호였다.

<연합뉴스>

30년 전통 광주대표 맛집 한정식 아리랑 하우스!

2011년을 보내는 의미있는 자리로 아리랑 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송년·신년모임 예약 접수중

● 금수장관광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품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www.geumsoojang.com

보약·홍삼은

복교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